

20. 환경미화원 에서 발생한 폐암

성별 남 나이 52세 직종 환경 미화원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한○○(남, 52)는 1994년 2월부터 OO시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년 8월 31일 K대학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한○○는 1994년 2월부터 2000년 6월까지 OO시청이 운여한 쓰레기 매립장에서 근무하였다. 당시 매립장에는 OO, OO공단의 산업폐기물, 건축폐기물, 일반쓰레기가 함께 매립되었고 이외에도 OO, OO공단의 공장 폐업, 신축이 많아 매일 슬레이트, 천정재, 벽 해체물, 배관보재, 플라스틱 및 피혁류와 각종 유류 유기용제, 페인트가 유입되었다고 한다. 이를 해체, 분류한 후 지상에서 소각로 없이 각종 화학물질, 금속류를 소각하고 매립하였다. 소각 작업은 개인보호구 없이 하루에 두 시간 정도 하였고, 주로 새벽에 했다고 하였다. 소각시에는 유독한 매연으로 호흡이 곤란할 정도였으며 악취가 심하여 어지러울 정도였다. 2000. 7 ~ 2002. 10 에는 쓰레기 차량을 따라다니며 생활, 산업쓰레기를 차에 싣는 작업을 하였고, 2002. 11 ~ 2006. 8 에는 개인별로 구역이 지정되어 정해진 근무시간내에 도로, 주택가의 리어카를 이용한 청소 작업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22세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 20갑년의 정도의 흡연력이 있다. 2006년 8월 31일 몸살기운과 함께 우측 등의 통증이 지속되고 방사선사진상 결절이 보여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시행한 조직학적 검사결과 편평세포암, 병기 IIIA, T3N2M0의 상태이며, 발병일 이전 건강진단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특이한 질환이 없었다..

4. 결론: 근로자 한○○은

- ① 1994년 이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 오다가 2006년 폐암으로 진단되었는데,
- ② 1994년에서 2000년까지 수행한 폐기물 매립/소각 작업중 석면, digoxin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 ③ 석면의 경우 노출수준과 노출빈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작업형태 및 장소에 대한 진술로 보아 간헐적인 저농도 노출일 가능성이 있고,
- ④ digoxin의 노출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노출수준으로 보기 어려우며,
- ⑤ 20-30 갑년의 장기간의 흡연은 폐암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한○○의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